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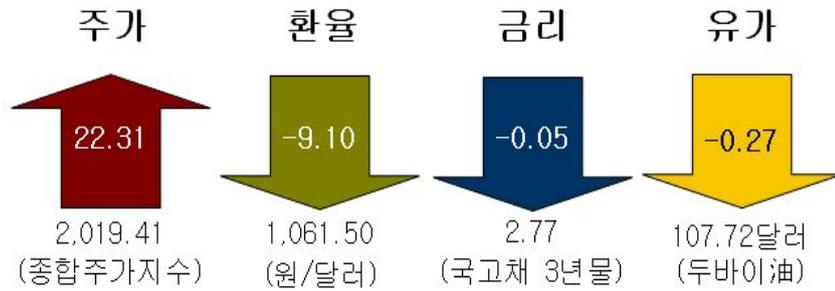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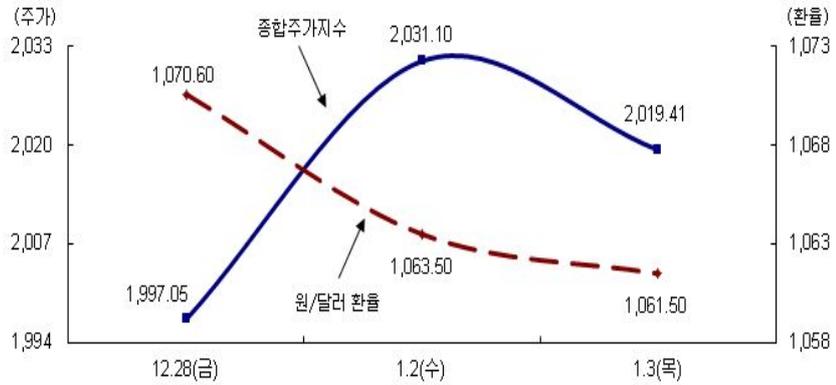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2013년 글로벌 10대 트렌드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2.28~1.3)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2013년 10대 글로벌 트렌드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3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성 : 이 부 형 수석 연구위원 외 (2072-6306, leebuh@hri.co.kr)

Executive Summary

□ 2013년 10대 글로벌 트렌드

■ 2013년에는 글로벌 거버넌스, 금융·경제, 군사·외교, 에너지·식량·자원, 산업·과학기술, 경영·소비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10가지 트렌드가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글로벌 거버넌스(권력구조)

① **G-Zero 시대 심화 : 세계 경제 리더십 약화.** 2013년에는 주요국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국제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공백으로 국제 질서의 불안이 심화되는 'G-ZERO'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다. G-ZERO 시대에는 미·중의 신정부 간 정치·경제적 갈등 심화, 글로벌 경제위기 지속 속 글로벌 리더십의 약화, 그리고 중동과 동북아시아 등 역내 리스크 고조 등이 특징으로 나타날 것이다.

■ 글로벌 금융·경제

② **글로벌 그레이트 모데레이션(Global Great Moderation) 전환 : 세계 경제의 안정적 저성장기로의 전환.** 세계 경제는 경제위기에서 점차 벗어나, 고성장의 한계에 봉착하여 4% 내외의 안정적인 저성장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③ **글로벌 경제 파워 이동 : 신흥개도국의 세계 경제 성장 주도.** 신흥개도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5%대로 세계 전체 GDP 성장률 3.8%를 크게 상회하는 반면 선진국은 1%대로 낮아 신고선저(新高先低)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신흥국이 세계 경제 활력의 중심 역할을 지속할 것이다. 특히, 아시아 신흥국들과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이 새로운 신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④ **자원 지도(Map) 확장 : 세계 주요 지역의 자원 분쟁 격화.** 역사적·종교적 갈등을 배경으로 한 중동·서남아시아의 전통적인 지역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원 확보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중국해의 난사군도, 동중국해의 센카쿠열도, 러시아 쿠릴열도 등이 핵심 분쟁지역으로 부각될 것이다. 더욱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영토분쟁은 역사적 배경과 함께 자원 확보 경쟁으로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글로벌 군사·외교

⑤ **리뉴어블 월드(Renewable World) 본격화 : 신재생에너지 이용 증가.** 에너지 자원 가격의 급등과 지구 환경 문제의 심화로 신재생에너지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본격 부상하는 리뉴어블 월드(Renewable World) 시대가 본격화될 것이다.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진전되면서 2013년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분 투자 및 고용 증대 등으로 지속가능성장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 글로벌 산업·과학기술

⑥ **팍스 로보티카(Pax Robotica) 전개 : 로봇 이용 확산.** 산업 및 일반 사회가 정에서의 로봇 이용이 확산되는 '팍스 로보티카' 시대가 성숙할 전망이다. 기존 산업 부문에서 서비스용 로봇 부문으로 로봇시장이 확장되면서 관련 산업에 대한 막대한 파급효과가 기대되면서 세계 각국은 로봇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는 다양한 로봇 수요를 창출할 것이며 스마트기기와의 융합이 가능해져 일반인의 로봇 개발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⑦ **싱터넷(Thingtnet) 시장 확대 : 사물인터넷의 보편화.** 스마트폰, 태블릿PC 외에도 다양한 물건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싱터넷은 IP 주소의 확보, 통신망의 발전, 데이터 저장 비용의 감소 덕분에 본격적인 발전이 가능해졌으며, 이로 인해 자원 이용의 효율성 및 생활의 안전성·편의성이 향상되고 관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⑧ **지구 뉴 프론티어(New Frontier) 부상 : 새로운 개발지역의 부상.** 세계 각국은 자원확보와 신성장동력 발굴 등의 목적으로 해양, 극지(북극)와 같은 미개척지 개발뿐 아니라 우주에까지 자원개발 영역을 확대하는 뉴 프론티어(New Frontier)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극지탐사기술, 우주항공기술 등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2013년에는 해양, 북극지역, 우주 개발 경쟁이 빠르게 확산될 것이다.

■ 글로벌 경영·소비

⑨ **M&A 전성시대 재현 : 새로운 거대 M&A 시장 형성.** 신성장동력 발굴에 노력 중인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2013년 세계 M&A 시장에서 스마트 쇼핑을 펼치면서 새롭게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경기 침체로 M&A 시장이 위축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기업 인수 기회가 증대되었을 뿐 아니라 주요 기업들의 투자 재원 역시 풍부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시장 및 신사업 진출을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M&A가 활발해지는 한편, 장기경영전략에 맞는 인수 대상에 대한 선별적·공격적 투자 사례가 증가할 것이다.

⑩ **세빌 서비스(Servile Servive) 유행: 고객 맞춤 만족서비스 상용 개발 증대**
세빌(Servile) 이란, 일상생활 속 언제 어디서나 하인처럼 고객들의 욕구와 필요 그리고 변덕까지도 맞추는 것으로 2013년 기업들이 새로운 판매 전략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고객 실시간 체험과 검색 서비스를 확대하고 시간과 비용 절약으로 고객의 효용을 극대화하며 공공 서비스의 사각지대까지도 보완하는 준 공공재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최근 소비자들이 '훌륭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고객데이터 관리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소비자 트렌드 변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I. 글로벌 10대 트렌드 선정

- 주요 국내외 미래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2013년 글로벌 거버넌스(권력구조), 금융·경제, 군사·외교, 에너지·식량·자원, 산업·과학기술, 경영·소비의 6개 분야에서 새롭게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0대 트렌드를 선정해보면 다음과 같음
- 거버넌스(권력구조) 부문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로는 'G-Zero 시대 심화'가 선정됨
- 금융·경제 부문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로는 '글로벌 그레이트 모데레이션(Global Great Moderation) 전환'과 '글로벌 경제 파워 이동'의 2개 트렌드가 선정됨
- 군사·외교 부문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로는 '자원 지도(Map) 확장'이 선정됨
- 에너지·식량·자원 부문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로는 '리뉴어블 월드(Renewable World) 본격화'가 선정됨
- 산업·과학기술 부문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로는 '팍스 로보티카(Pax Robotica) 전개', '싱터넷(Thingtnet) 시장 확대', '지구 뉴 프론티어(New Frontier) 부상'의 3개 트렌드가 선정됨
- 마지막으로 경영·소비 부문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로는 'M&A 전성 시대 재현'과 '세빌 서비스(Servile Service) 유행'이라는 2개 트렌드가 선정됨

< 2013년 글로벌 10대 트렌드 >

분야	트렌드 내용
거버넌스(권력구조)	- G-Zero 시대 심화 : 세계 경제 리더십 약화
금융·경제	- 글로벌 그레이트 모데레이션(Global Great Moderation) 전환: 세계 경제의 안정적 저성장기로의 전환 - 글로벌 경제 파워 이동 : 신흥개도국의 세계 경제 성장 주도
군사·외교	- 자원 지도(Map) 확장 : 세계 주요 지역의 자원 분쟁 격화
에너지·식량·자원	- 리뉴어블 월드(Renewable World) 본격화 : 신재생에너지 이용 증가
산업·과학기술	- 팍스 로보티카(Pax Robotica) 전개 : 로봇 이용 확산 - 싱터넷(Thingtnet) 시장 확대 : 사물인터넷의 보편화 - 지구 뉴 프론티어(New Frontier) 부상 : 새로운 개발지역의 부상
경영·소비	- M&A 전성시대 재현 : 새로운 거대 M&A 시장 형성 - 세빌 서비스(Servile Service) 유행 : 고객 맞춤 만족서비스 상용 개발 증대

II. 글로벌 10대 트렌드의 주요 내용

1. G-Zero 시대 심화 : 세계 경제리더십 약화

○ (의미)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국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국제사회가 다원화 됨에 따라 강력한 리더십에 의한 글로벌 차원의 거버넌스가 부재함으로 국제 질서의 불안이 심화되는 현상

- 글로벌 리더십 부재

-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의 쇠퇴로 글로벌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었고, G-2로 부상한 중국은 아직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역부족
- UN이나 IMF, G-8 또는 G-20 등 각종 국제협력기구들의 공조는 이뤄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선언적 차원에서 협력의 방향성만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음

- 국제사회의 다원화

- 경제, 환경, 교육, 인권 등 글로벌 이슈들이 다원화되었고 NGO 등 비정부기구의 대두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신속한 이슈의 공유 등으로 과거와 같이 패권을 바탕으로 한 일방적인 거버넌스가 적용되기 불가능
- 각국의 주권의식과 국력이 성장함에 따라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중재하거나 해결을 유도하는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역할이 한계에 봉착

○ (내용) 2013년 글로벌 리더십의 공백으로 인해 미·중 새정부간 갈등의 심화, 글로벌 경제 위기 지속, 지역내 리스크 고조 등으로 국제 사회의 불안이 가중될 전망

- 미·중 새정부의 갈등 심화

- 2013년 새정부 출범 이후 위안화 환율 절상 문제, 통상 갈등, 중국의 인권 및 지적재산권 문제, 동북아 영토 문제, 북한 문제 등 다양한 이슈를 두고 미·중 사이의 치열한 기싸움이 전개될 예상
- 그러나 미·중 새정부간 갈등이 심화될 경우 양국의 리더십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합의에 바탕을 둔 국제협약체의 역할도 현저히 약화

- 글로벌 경제 위기 지속 가능성 상존

- 2013년에도 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 경제의 불안이 지속되면서 G-2 및 선진국들이 자국의 경제 문제 해결에 치중하게 될 것임. 이로 인해 주요국들이 글로벌 차원의 리더십 발휘가 곤란

- 한편 유로존의 위기나 미국 재정 위기 등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갈등이 지속 되면서 정치적 리더십이 없는 불안한 상황이 지속
- 선진국의 경제위기가 신흥국과 약소국 등으로 전이되면서 선진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대한 반발과 저항의 움직임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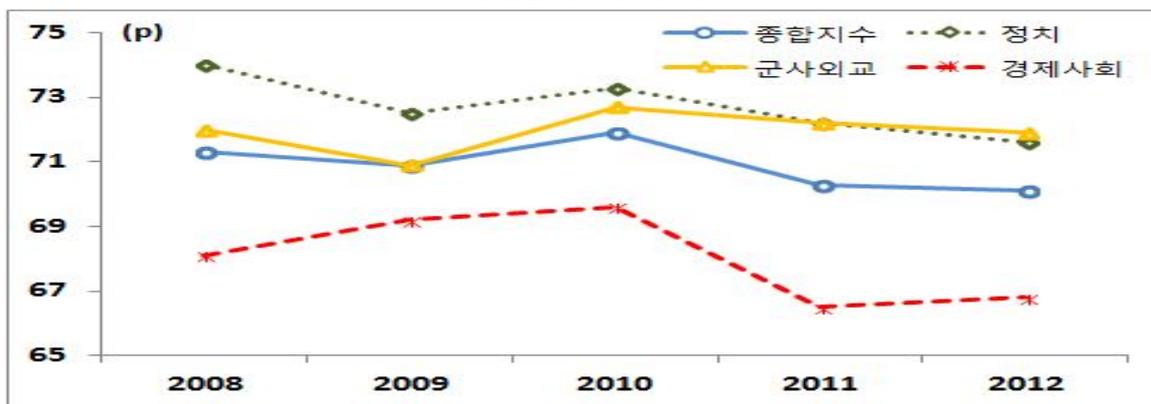
- **역내 리스크 고조**

- 2013년 글로벌 리더십의 부재로 다양한 지역내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다시 국제사회의 불안이 고조될 가능성도 상존
-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시리아 사태 및 이란 핵문제 등 중동지역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전쟁의 위협과 함께 국제유가 급등도 우려
- 유로존 각국의 이해관계가 조정되지 못함에 따라 유로존 위기가 장기화되고 동북아시아에서도 일본 우경화 및 영토 분쟁 등으로 역내 불안 가중

○ (시사점) **G-Zero 시대에 다자간 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기구 및 협력체를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 증대**

- 미·중 양자와의 정치-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거버넌스 구축을 주도하고 대외 영향력을 확대하는 외교정책 추진
- G-2외에 UN, G-20, APEC 등 국제기구 및 협력체제의 역할 강화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글로벌 여론 형성 및 국제 공조를 주도
- ODA 공여 확대 및 국제기구의 유치와 전문 인력 진출 등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 구축

< 세계평화지수 추이 >



자료 : 세계평화포럼, “세계평화지수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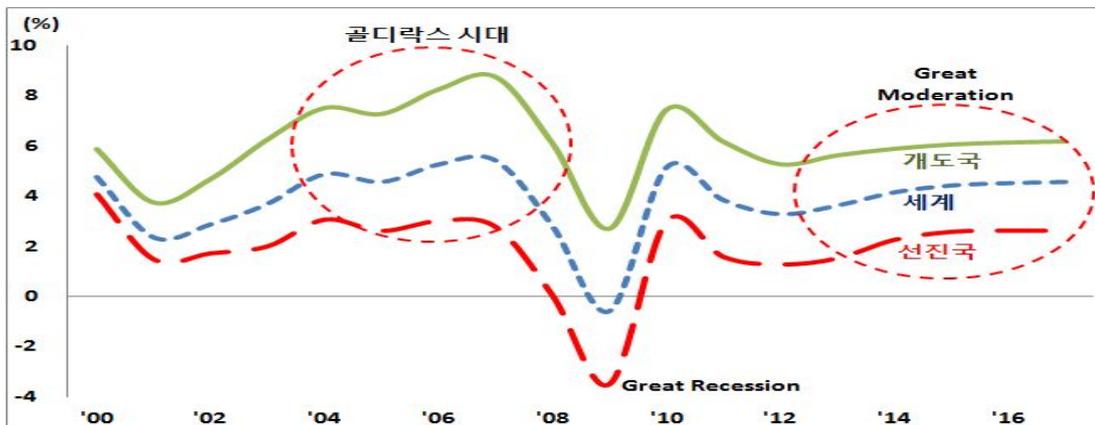
주 : 지수는 세부영역별 평가지표의 평균치로서 0(비평화)-100(평화) 외 값을 가짐. 정치분야는 국내정치 갈등, 내전, 민주주의와 민주화 정도 등이 고려되며, 군사외교분야는 국가 간 갈등, 전쟁여부, 군사비와 군사화 정도 등이 고려됨. 경제사회분야는 안전성, 경제적 안정도, 사회적 불평등, 빈곤 및 삶의 질 등이 고려

최성근 선임연구원(csk01@hri.co.kr 2072-6223)

2. 글로벌 그레이트 모데레이션(Global Great Moderation) 전환 : 세계 경제의 안정적 저성장 기조 전환

- (의미) 세계 경제가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나, 고성장의 한계에 봉착하여 안정적인 저성장세를 보이는 세계 경제 추세를 의미함
 - 유럽과 미국의 재정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등 주요 개도국의 성장세 둔화로 세계 경제가 고성장하기 어려움
- (내용) 선진국뿐만 아니라 브릭스와 아시아 신흥국에서도 완만한 경제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세계 경제의 안정적 저성장 기조) 골디락스와 대침체 이후 세계 경제는 이전의 고성장기보다 낮은 4% 내외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재정 및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은 요소주도형 성장보다는 혁신주도형 성장 경제의 성숙을 보이며, 낮은 물가상승률과 1.5~2.5%의 하향 안정적인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개발도상국은 세계 경제 회복 지연의 외부 요인과 자국 경제 성장의 전환기적인 내부 요인으로 이전의 7~8%대보다 하락한 5~6%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세계 경제 대안정 시대의 경제성장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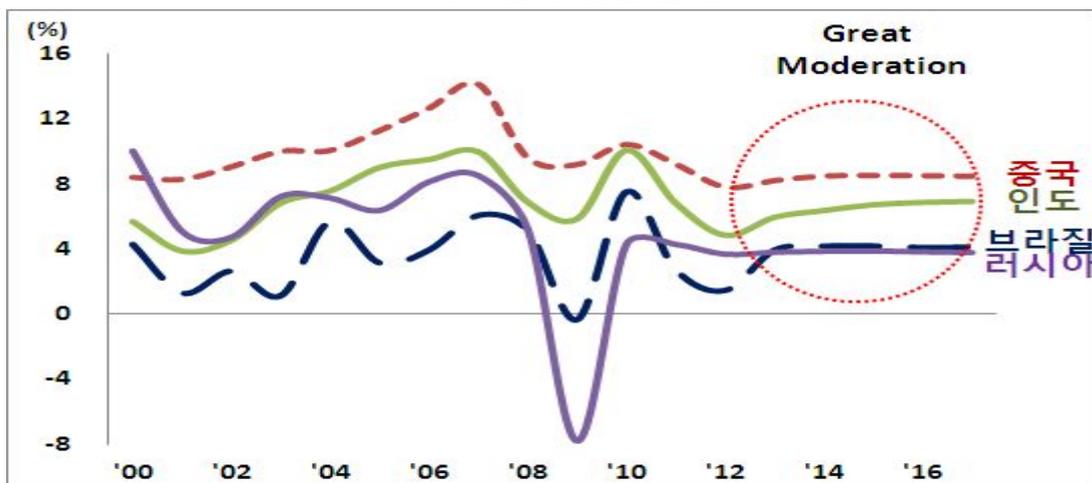
자료 : IMF

주 : 골디락스는 생산성의 향상으로 물가 상승을 동반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성장을 이루는 이상적인 경제 현상을 일컫음(Financial Times)

- (브릭스 경제 성장 정체) 수출 중심의 경제 정책에 힘입어 높은 성장률을 구가했던 브릭스(BRICs)¹⁾는 내수 중심의 경제 정책 전환에 따른 성장통을 겪으면서 이전과 같은 고도 성장이 지속되지 않을 전망
 - 중국 경제는 루이스 전환점²⁾에 도달, 경제성장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인도는 정치적 리더십 부재와 약한 정부 통치력으로 경제성장률이 6% 내외로 하락할 것임
 - 브라질의 경우, 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보다 복지 지출이 중시되면서 성장잠재력이 저하됨에 따라 중장기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우려

- (아시아 신흥국 성장세 둔화)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높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 중심인 아시아 신흥국도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수요 관리 정책 등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³⁾

< 브릭스 경제 성장 정체 >



자료 : IMF

- (시사점)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에 대비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노력이 필요함
- 내수 확충과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높은 신시장 개척, 새로운 상품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의 지속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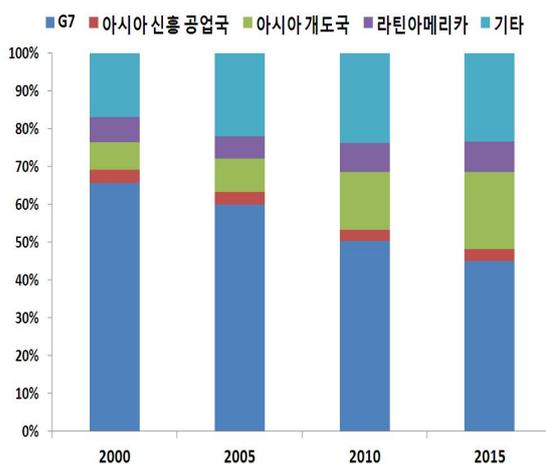
홍준표 연구위원(02-2072-6214, jphong@hri.co.kr)

1) 브라질(Brazil), 러시아(Russia), 인도(India), 중국(China).
 2) 루이스 전환점은 개발도상국에서 농촌 잉여 노동력이 고갈되면 임금이 급등해 성장세가 둔화되는 현상을 일컫음.
 3) The Economist(2012.11.10), "Asia's Great Moderation".

3. 글로벌 경제 파워 이동 : 신흥개도국의 세계 경제 성장 주도

- (의미) 아시아 등 개도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 성장으로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등하여 세계 경제의 성장동력이 선진국에서 아시아 및 신흥 지역으로 이동
 - 신흥 아시아 지역의 높은 성장세로 글로벌 경제 중심이 아시아 신흥지역으로 지역으로 이동하며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증
- (내용) 신흥국들의 높은 경제 및 무역 성장세로 이들 신흥 지역이 부상하며 글로벌 경제 파워가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
 - 경제 성장률의 신고선저(新高先低) 현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 성장의 중심이 신흥국으로 이동
 - 신흥지역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5%대로 높게 나타나 세계 전체 GDP 성장률 3.8%를 크게 상회하는 반면 선진국은 1.6%로 낮아 신고선저(新高先低)의 경제 성장이 이어지며 이에 따라 경제 중심이 신흥국으로 이동

< 지역별 GDP가 세계 GDP 중 차지하는 비중 >



< 신흥 지역 경제 부상 >

구분	인구 (억 명)	GDP 비중 (%)	무역 비중 (%)	평균 GDP 성장률 (%)
BRICs	28.9	19.2	16.0	5.8
바트(Baht)+ 인도네시아	4.8	2.0	3.0	5.5
중동+북아프리카 (MENA)	3.9	4.4	7.4	5.2
라틴아메리카	6.0	8.3	7.3	4.6
아프리카	8.8	1.8	2.5	4.2
세계 전체	70.0	100.0	100.0	3.8

자료 : IMF, World Bank

- 주 1. 2015년은 추정치.
2. 아시아 신흥 공업국은 홍콩, 한국, 싱가포르, 타이완을 포함.
3. 평균 GDP 성장률은 2011년 기준, GDP 성장률은 각국의 단순 평균.
4. 바트(Baht) 경제권은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5. 아프리카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를 나타냄.

- 아시아 지역 및 중동 등 북아프리카 지역이 신시장으로 성장
 - 높은 경제 성장률과 인구 증가율로 인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⁴⁾ 등 아시아 신흥국들과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이 새롭게 부상하는 신시장으로 성장
- 신흥국의 무역 거래가 선진국보다 더욱 활성화
 - 캄보디아의 수출 증가율은 23.6%, 인도네시아는 10.0%, 말레이시아 10.1%, 남아공 6.1%, 베트남 4.5%를 나타내고 수입 증가율도 캄보디아는 8.4%, 인도네시아는 28.6%, 말레이시아 18.1%, 남아공 8.9%, 베트남 3.0%를 나타냄
 - 이들 신흥국의 수출입 증가율은 세계 수출 증가율 3.1%, 수입증가율 3.7%와 선진국 수출 증가율 2.4%, 수입증가율 1.7%보다 매우 높은 수치로 신흥국의 무역 거래가 선진국 보다 더욱 활성화
- 신흥국의 적극적인 지역무역협정 추진으로 역내 교역 및 경제 협력 강화
 -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신흥 개도국들은 역내 교역을 활성화하고 경제 협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역무역협정 추진⁵⁾
 - 지역무역협정 발효 건수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칠레는 22개, 인도는 16개, 중국은 11개, 태국 11개, 말레이시아는 11개, 터키는 19개로 신흥국의 지역무역협정 발효 건수 증가세가 최근 더욱 가속화
 - 반면에 미국은 14개, 캐나다는 7개, 일본은 13개, 호주는 8개의 지역무역협정 발효 건수를 나타내 신흥보다 발효 건수가 적음
- (시사점)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시장에 대해 지역별 및 국가별로 경제 상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이들 국가와의 경제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신흥 시장 각국의 문화 및 사회적 배경을 숙지하고 신흥국 정부의 정책에 따른 관련 법규정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

김민정 연구위원 (02-2072-6212, kimmj@hri.co.kr)

4) IMF에 따르면, 2012년 경제성장률은 인도네시아 6.3%, 태국 5.6%, 미얀마 6.2%, 캄보디아6.5%, 라오스 8.3%, 베트남 5.1%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어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1.3%를 크게 상회.
 5)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륙 간 지역무역협정이 총 94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유럽 지역이 47건, 아시아 지역이 41건, 미주 지역이 40건을 기록하며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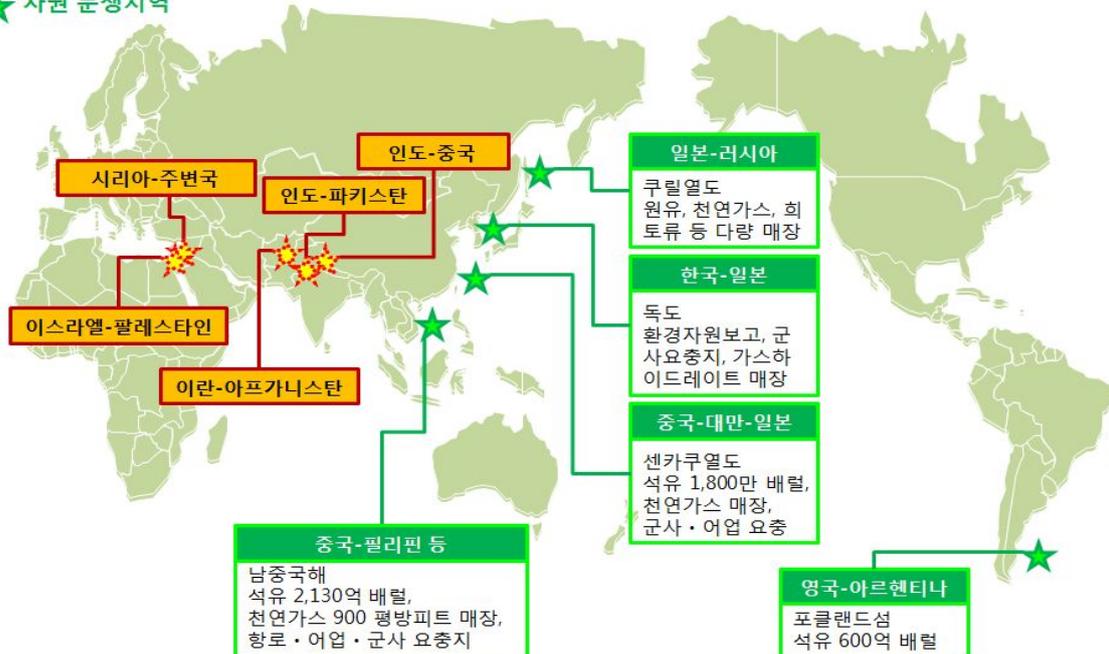
4. 자원 지도(Map) 확장 : 세계 주요 지역의 자원분쟁 격화

- (의미) 역사적·종교적 갈등을 배경으로 한 중동·서남아시아의 지역분쟁이 최근 자원민족주의·애국주의의 고취로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
 - 미·중간 군사적 긴장 고조 가능성
 - 오바마 2기에는 외교·군사정책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이동하는 아시아 회귀 전략(Pivot to Asia) 추진, 중국은 이를 '중국 포위·봉쇄' 전략으로 이해
 - 아시아 지역 분쟁당사국 단호한 대처 의지 표명
 - (중국) 남중국해와 센카쿠열도 등 영토 문제에서는 한걸음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군력을 증강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일본) 우경화가 급진행되면서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찬성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등 센카쿠와 쿠릴 열도, 독도 등을 지속적으로 분쟁지역화할 것임
 - (러시아) 쿠릴열도의 분쟁지역화 방지를 위해 노력
 - (기타) 필리핀 등 남중국해 각국들은 공동협력을 통해 對중국 억지력 강화
- (내용) 전통적인 지역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원을 둘러싼 영토분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전망

< 주요 유형별 분쟁 지역 분포 >

☀ 역사적·종교적 분쟁지역

★ 자원 분쟁지역



- 역사적·종교적 분쟁지역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이란-아프가니스탄, 인도-파키스탄, 인도-중국, 시리아 및 주변국들 간의 역사적·종교적 갈등에 근거한 전통적인 분쟁은 여전히 중동과 주변 지역의 불안 요인으로 남아있을 것임
 - (시리아-주변국) 2011년 3월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이스라엘, 터키, 요르단, 레바논 등 인접국으로 분쟁이 확산될 위험 존재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1948년 이스라엘 수립 이후, 역사적, 종교적, 인종적 갈등으로 4차례의 중동전쟁 이후에도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는 대표적 분쟁 지역
 - (아프가니스탄-이란) 1996년부터 아프간에서 수니파 탈레반 세력이 정국을 장악하면서 이란은 종교적 뿌리가 같은 아프간 시아파 이슬람세력을 지원하여 탈레반 세력과 대립하며 갈등 지역으로 대두

- 자원 분쟁지역 : 남중국해의 난사군도, 동중국해의 센카쿠열도, 러시아 쿠릴열도, 동해의 독도 등 자원 확보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확산될 것임
 - (남중국해의 난사군도) 2000년대 들어 중국이 정치·경제·군사·외교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조, 주변국들과의 분쟁 촉발
 - (동중국해의 센카쿠열도) 지난 2010년부터 동중국해의 에 관한 실효 지배 및 영유권을 놓고 일본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대만마저 분쟁에 뛰어들어 이들 3국 간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큼
 - (러시아의 쿠릴열도) 일본의 끊임없는 영유권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해양자원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분쟁지역으로 부상
 - (동해의 독도) 지정학적인 요충지일 뿐 아니라 생물자원의 보고이자 다양한 미개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일본이 지속적인 분쟁지역화 시도 중이며, 아시아 이외의 지역에서도 최근 영토분쟁이 발생하는 등 확산⁶⁾

- (시사점)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영토분쟁은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자원민족주의로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은 조정자·중재자 역할을 통해 실리를 최대화해야 할 것임

- 특히, 자원개발 분쟁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

이해정 연구위원(02-2072-6226, hjlee@hri.co.kr)

6) 남아메리카에서는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아르헨티나명 말비나스)섬을 두고 분쟁 중인데 분쟁의 시발점은 영국 기업의 유전개발사업 때문으로 주변 해양에는 석유 600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5. 리뉴어블 월드(A Renewable World) 본격화 : 신재생에너지 이용 증가

- (의미) 에너지 자원 가격의 급등과 지구 환경 문제의 심화로 인한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요구 증대로 신재생에너지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본격 부상하는 리뉴어블 월드(Renewable World)의 서막이 오름)
 - 신재생에너지는 크게 수력, 바이오, 풍력, 지열, 태양열, 해양(조력 등이 포함)과 같은 6개 에너지 부문이 포함됨

- (내용) 각국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정비로 투자가 증대되면서 2013년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전망
 -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 투자 급증
 - 세계 신재생에너지 분야 신규투자 규모는 2004년 390억 달러에서 2011년 2,570억 달러로 연평균 30.9%씩 증가
 - 2011년 기준 전체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선진국 890억 달러, 개도국 1,680억 달러로 개도국에서의 투자가 선진국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 신재생에너지 부문 활성화로 Green-Collar Job의 부상
 -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와 혁신이 가속화될 경우, 관련 부문에서 발생하는 고용 즉, Green-Collar Job 규모가 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과 같은 전통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하는 고용 규모를 능가할 것임
 - 2010년 현재 세계 에너지 부문 고용자 수는 2,250만 명으로 추정되며,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전체의 34.7%에 불과
 -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혁신이 지속될 경우 2015년 신재생에너지 부문 고용자 수는 총 1,220만 명으로 전체 에너지 부문 고용자의 52.4%까지 상승할 전망

7) UN World Future Council(2009)에 따르면 Renewable World는 광의로는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활용 확산으로 인한 환경과 경제, 빈곤과 공해 등 자연 및 인간을 둘러싼 생활환경과 경제성장과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칭하나, 협의로는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막대한 투자와 함께 발생하는 새로운 고용기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경제현상을 말하는데 여기에서의 의미는 협의의 개념임. *UN World Future Council(2009), A Renewable World: Energy, Ecology, Equ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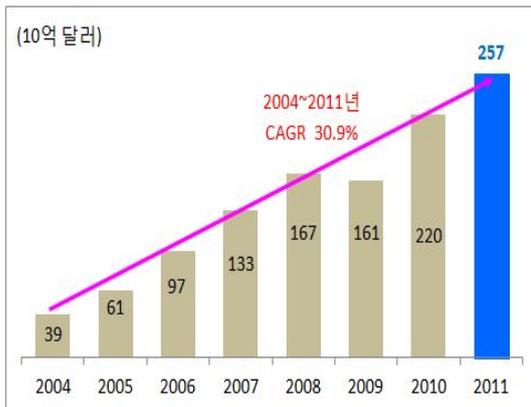
- 세계 에너지 소비 구조 전환

- 전체 에너지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9.6%에서 2015년 22.1%, 2025년 26.9%, 2035년 31.0%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이로 인해 세계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2010년 13.2%에서 2015년 13.9%, 2025년 15.8%, 2035년 17.9%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

- 신재생에너지의 친환경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기여도 상승

- Global Wind Energy Council etc(2012)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혁신이 가속화될 경우 2009년 기준 CO2 환산 279.3억 톤인 온실가스 규모가 연평균 5.1%씩 감소하여 2050년에는 2009년의 11.0% 수준인 30.8억 톤으로 축소될 것으로 기대

< 세계 신재생에너지 분야 신규투자 규모 >



자료 : 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for the 21st Century(2012), Renewables 2012; Global Status Report.

< 신재생에너지와 전통에너지 부문 고용 규모 >

구분	2010	2015	2020	2030
석탄	910	550	410	210
가스, 오일, 디젤	510	540	530	390
핵	54	26	27	27
신재생 에너지	78	1,220	1,300	1,190

자료 : Global Wind Energy Council etc(2012), Energy [R] evolution; A Sustainable World Energy Outlook.

주 : 에너지 혁신이 지속될 경우의 고용창출효과.

○ (시사점) 대외 에너지의존도가 높은 국내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용 확대를 통해 에너지자립도를 제고시키는 한편 지속성장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해야 함

- 투자와 고용(Green-Collar Job) 창출 및 수출산업화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탄소배출량 저감 등을 통해 지속성장의 기반이 될 것임

정 민 선임연구원(02-2072-6220, cchungm@hri.co.kr)

6. 팩스 로보티카(Pax Robotica) 전개 : 로봇 이용 확산

○ (의미) 로봇이 전 산업 및 일반 사회·가정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팩스 로보티카' 시대가 도래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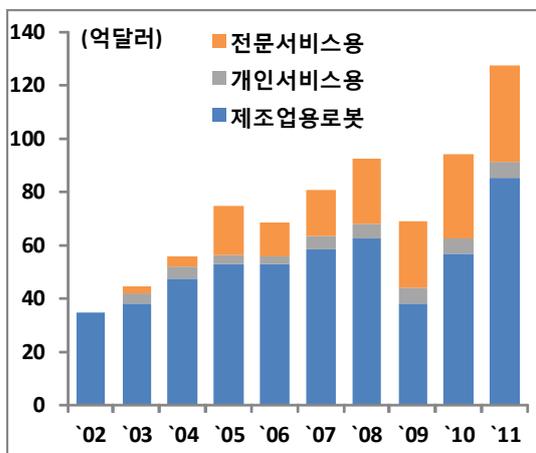
- 서비스용 로봇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지금까지 산업 현장에 국한되었던 로봇 보급이 점차 일반 사회 및 가정에도 보편화 될 것으로 예상

○ (내용) 제조업용 로봇에 치중되었던 시장 구조가 재편되고 있으며 글로벌 로봇 산업 육성 경쟁 심화,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한 제품 출시, 스마트 기기와 로봇 기술 융합 등이 미래 로봇 산업의 주요 발전 동력이 될 전망

- (시장 구조의 재편) 지금까지 로봇산업은 제조업용 로봇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최근 서비스용 로봇 시장의 성장세가 가속화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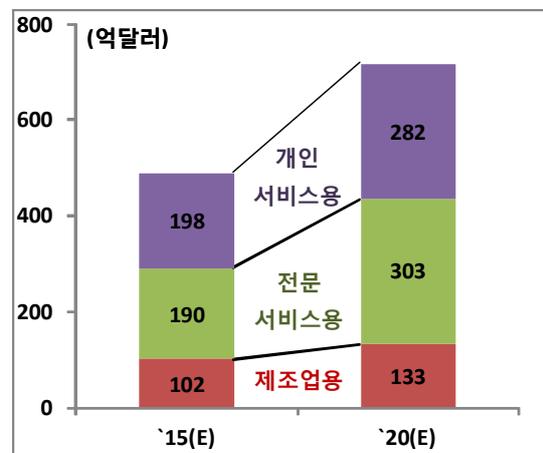
- 로봇은 크게 제조업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으로 구분되고 서비스용 로봇은 국방·의료 등 전문서비스용과 가사·교육 등 개인서비스용 로봇으로 세분화
- 2011년 현재 시장 규모는 제조업용 로봇 약 85억달러, 서비스용 로봇 42억 달러로 제조업용 로봇이 세계 시장의 66.7%를 점유
- 최근 서비스용 로봇 시장이 급속한 성장으로 세계 로봇 시장은 2020년 7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되며 이중 서비스용 로봇이 약 8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세계 로봇시장 추이 >



자료 : IFR, 'World Robotics 2012'.
주 : 매출액 기준.

< 국내 로봇시장 추이 >



자료 : 산업연구원, 신성장 동인으로 주목받는 로봇산업의 현황과 발전전략.

- (글로벌 로봇산업 육성 경쟁 심화) 시장 선점을 위해 세계 각국이 로봇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면서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
 - 미국은 일상생활에서 인간을 돕는 ‘Co-Robot’ 정책을 추진하고 일본은 산업용 로봇 세계 1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실버·의료부문 서비스용 로봇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유럽 역시 로봇기술의 대규모 협동연구를 진행 중
 - 한국 또한 ‘로봇 미래전략(2013~2022)’을 통해 2022년 로봇시장 25조원 달성, HW-SW-서비스 선순환형 로봇 생태계 조성 및 1인 1로봇 시대 구현을 목표로 향후 10년간 약 3,500억원(잠정)을 투자할 계획⁸⁾

-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한 제품 출시) 미래 메가트렌드에 따른 신규 수요 창출로 청소용 로봇에 국한되었던 개인서비스 로봇 제품군이 다양화될 전망
 -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구조 변화로 공장 내 생산 기기로만 인식되던 로봇을 가정, 학교 등 일상 생활에서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대
 - 현재 생활 가전의 하나로 자리잡은 로봇 청소기 외에도 라이프케어, 에듀테인먼트 로봇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로봇의 상용화가 본격 진행⁹⁾

- (스마트기기와 로봇과의 융합) 스마트기기와 로봇과의 융합으로 로봇 보급이 가속화되고 일반인의 로봇 개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기기가 로봇의 두뇌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로봇이 등장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로봇 제어가 가능해질
 - 어플리케이션 개발 능력만 보유하면 개인이 로봇의 새로운 동작과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는 일반 사용자의 로봇 개발이 현실화될 전망

- (시사점)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는 로봇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투자 확대, 관련 고급 기술 인력의 체계적 육성,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범국가적 협력체계 구축 등에 주력해야 함
 - 특히, 지원제도 마련을 통한 수요 확충 등 신성장동력 산업화 기반을 조성해야 함

백다미 연구원(02-2072-6239, dm100@hri.co.kr)

8) 지식경제부, ‘로봇 미래전략(2013~2022)’ 발표자료 (2012.10.17).

9) 한국의 휴보, 일본의 아시모 등 휴머노이드 로봇(인간형 로봇)의 현재 기술 수준은 전신제어 및 자율행동제어기술 등의 채용으로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장애물을 피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며 복잡한 형태의 물건도 떨어뜨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한 상황.

7. '싱터넷(Thingtnet)' 시장 확대 : 사물인터넷의 보편화

- (의미) 싱터넷은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을 의미하는 신조어로 다양한 물건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효율성을 높인다는 개념¹⁰⁾
 - 지금까지 인터넷은 컴퓨터와 전화기(모바일 기기)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이제는 다양한 물건에까지 칩이 탑재되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됨
 - 2013년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PC를 제외하고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의 수가 10억 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 싱터넷은 10년 전부터 이야기되어 왔으나 IP 주소의 확보, 통신망의 발전, 데이터 저장 비용의 감소 덕분에 2013년부터 본격적인 발전이 가능해짐
 - 새로운 IP주소체계(IPv6) 도입으로 3.4×10³⁸개의 사물에 고유주소 할당 가능
 - 4세대(4G) 통신망 구축으로 정보 전송량을 감당할 만큼의 대역폭 확보
 -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함으로써 막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비용 절감
- (내용) 자원의 효율적 이용, 안전성·편의성 향상, 관련 시장의 확대 등 일상생활 및 산업분야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 (자원의 효율적 이용) 언제 어디서나 모든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원의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물류 위치추적, 재고 원격 관리, 제품 자가 점검 등을 통해 한정된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

< 싱터넷(Thingtnet)의 적용 영역 >

산업	적용 분야	관련 사업
IT	클라우드컴퓨팅	제품 간 호환성 활용 서비스 확장
자동차	스마트카	실시간 차량 점검 및 운전자 관리 시스템
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원격검침,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 및 절감
교통	지능형 교통망	실시간 교통 모니터링 및 내비게이션 서비스
유통·물류	마케팅·물류정보	광고판 제어, 위치추적 및 재고 원격 관리
헬스케어	원격진료	원격 환자 모니터링
보안	가정보안시스템	개인 위치 추적, 주택 원격 관리
농업	스마트팜	농작물 발육 모니터링

10)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은 1999년 영국의 IT전문가 Kevin Ashton이 처음 사용한 용어로 사물지능통신(M2M, Machine-to-Machine), 지능형사물(Smart Things)을 인터넷으로 확장한 개념

- (안전성·편의성 향상) 인명과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는 한편, 생활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엘리베이터, 소방 및 의료장비, 차량 등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이 향상됨으로써 각종 사고와 범죄율 감소에 기여
 - 어린이용 칫솔이 아이의 양치질 습관과 관련된 데이터를 컴퓨터로 보내거나 골프클럽이 선수의 스윙 정보를 전송하는 등의 사례가 현실화될 수 있음
- (관련 시장의 확대) 기기 및 통신 모듈, 유무선 네트워크 서비스, 솔루션 개발 등 세계 싱터넷 시장은 2014년까지 50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
 - 세계 싱터넷 시장 규모는 2010년 25조원 수준에서 2014년에는 50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 (연평균 22.2% 성장)
 - 국내 싱터넷 시장 규모는 2010년 2조원 수준에서 2014년에는 약 8조원으로 성장할 전망 (연평균 34.8% 성장)



자료: IDATA



자료: KISDI

- (시사점) 융합을 통한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사회·윤리적,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싱터넷의 빠른 확산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을 확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 사회적 공동 대응이 중요

장우석 연구위원(02-2072-6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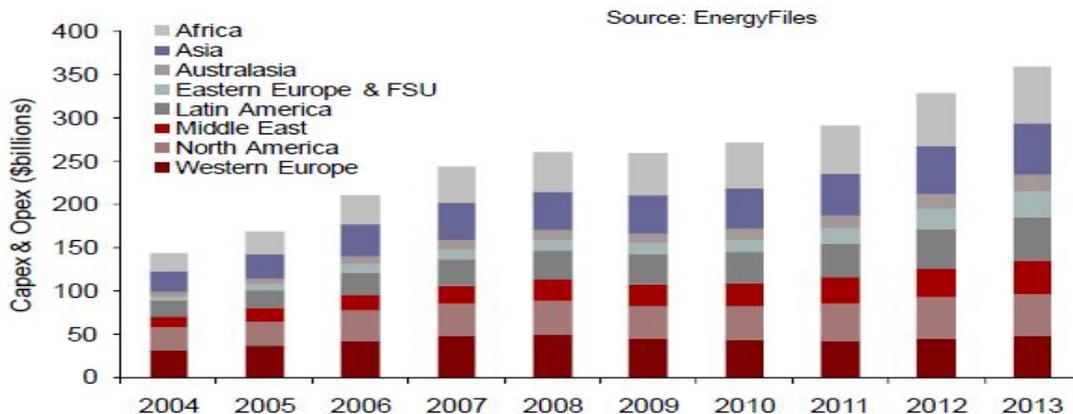
8. 지구 뉴 프론티어(New Frontier) 부상 : 새로운 개발지역의 부상

- (의미) 세계 각국은 자원확보는 물론 신성장동력 발굴 등을 목적으로 지구 내 해양, 극지(북극)와 같은 미개척 자원보고뿐 아니라 우주에까지 자원개발 영역을 확대하는 뉴 프론티어(New Frontier)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
- (내용) 극지 탐사기술, 로켓기술 등 미개척지 개발을 위한 기술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2013년에는 해양과 북극 자원개발은 물론 상용 우주개발 경쟁이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임

- 각국의 해양관할권 확보 및 해양개발 경쟁이 심화

- 세계 해양 석유 매장량은 전체 석유 매장량의 약 26%인 410억 톤, 천연가스 매장량은 전체 천연가스 매장량의 약 36%인 65조m³에 해당¹¹⁾되며, 광물자원량은 육상에 비해 해상이 가채년수가 적어도 수백 년에서 수 만년 긴 것으로 추정
- 이로 인해 굴삭선, 셔틀탱커, 해양구조물 등 해양자원개발 관련 투자가 2008년 2,600억 달러에서 2013년 3,600억 달러로 연평균 6.7%씩 증가할 전망
- 미국은 'An Ocean Blueprint for the 21st Century', 중국은 '중국해양어젠다 21'을 추진 중이며, 일본은 '장기적인 전망의 일본 해양개발 기본구상 및 추진방안' 수립 중

< 해양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투자 전망 >



자료 : John Westwood(24 March, 2009), *Global Prospects*, IECCO, London에서 재인용.

주 : FSU(Former Soviet Union)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전 소련연방국가들이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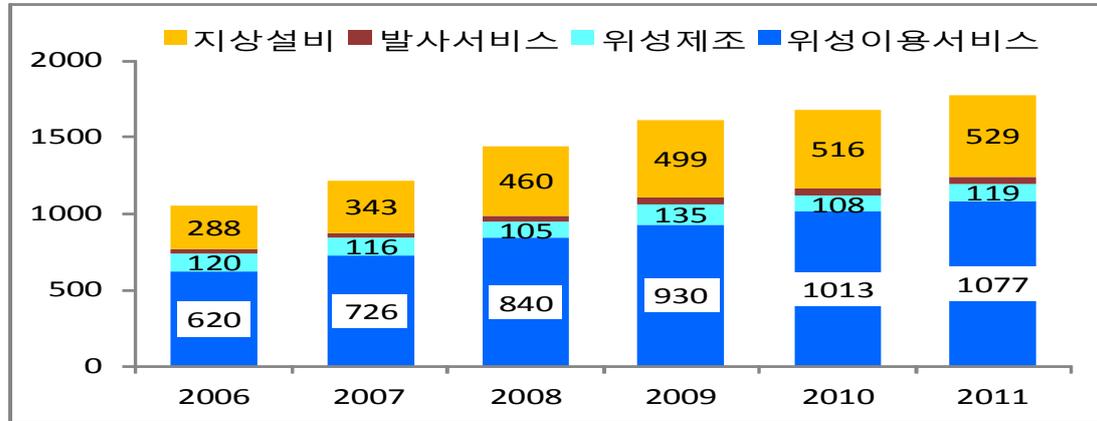
- 위성체 산업 중심의 우주 활용 시대 본격화

- 세계 위성산업 규모는 2011년 1,773억 달러, 전체 우주산업 규모는 2,898억 달러로 추정
- 세계 각국 정부는 많게는 GDP의 0.38%까지 우주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중국, 인도와 같은 국가들의 투자가 급증

11) 'World Ocean Review 2010,' <http://worldoceanreview.com>.

< 세계 위성산업 규모 추이 >

(억 달러)



자료 : Satellite Industry Association(May 2012), State of the Satellite Industry Report.

- 북극의 자원 및 환경 등 다목적 개발 진전

- 천연자원은 물론 해운업, 수산업 등 다양한 산업자원을 보유해 세계 각국의 개발표적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기상기구가 청정지역으로 선정하는 등 최근에는 지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보호로서의 연구가치가 매우 높음
- 북극지역의 석유 매장량은 세계 전체의 14%(900만 배럴), 천연가스는 동 25%(47조m)에 달하며, 주변 주요 어장 어획량은 세계 어획량(10년 8,860만 톤)의 약 40% 수준¹²⁾
- 항로의 경우, 한국은 천연가스, 원유, 석탄, 철광석 등 주요 수입 자원 항로를 북극항로로 바꿨을 때 비용(통행료 제외)은 기존 항로보다 15% 이상 절감¹³⁾
- 미국은 'Arctic Region Policy Directive('09년)', 러시아는 'Fundamentals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Arctic up to 2020 and Beyond('08년)'를 발표하여 북극의 전략적인 활용을 꾀하고 있는 등 세계 각국 적극 대응 중

○ (시사점) 자원고갈 대응 뿐 아니라 신성장동력의 발굴, 국가안보 차원에서 해양, 북극지역, 우주개발 분야에서 새로운 프론티어를 발굴해야 함

- 군관민, 산학연 등 국내 전 부문의 협력, 글로벌 연계 강화, 국제기구 내 교섭 능력 제고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불이익을 회피
- 특히, 국가안보 차원에서 동북아 해역에 대한 주변국 평화 이용 촉진 등을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이 필요함

이부형 수석연구위원(02-2072-6306, leebuh@hr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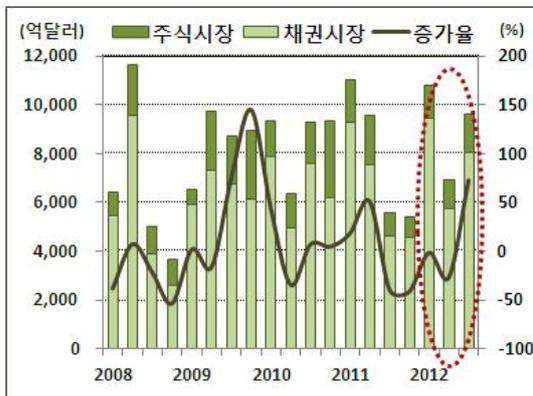
12) IEA(2012), World Energy Outlook 2012: Global Energy Trend; FAO, Fishery and Aquaculture Statistics.

13) 이성우 외(2011. 12), 북극항로 개설에 따른 해운항만 여건 변화 및 물동량 전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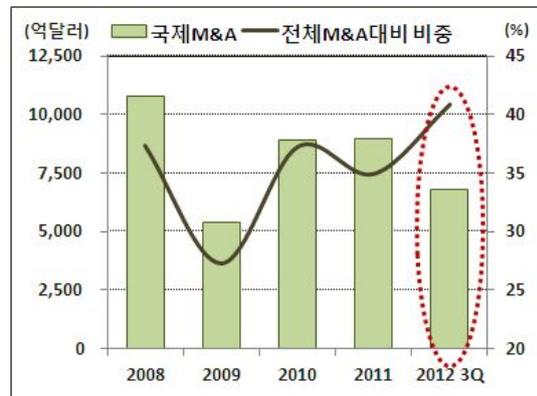
9. M&A 전성시대 재현 : 새로운 거대 M&A 시장 형성

- (의미) 신성장동력 발굴에 노력 중인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스마트 쇼핑을 펼치며 M&A 시장에 재등장
- (내용) 유동성을 확보한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 인수 가격 하락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신규 시장 및 신사업 진출을 위한 M&A를 개시
- (저가 매수 기회 발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침체 및 M&A 시장 위축 등의 영향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기업 매수 기회가 증대
 - 2012년 3/4분기 M&A 건당 거래액은 글로벌 경기 호황의 막바지인 2008년 2/4분기의 40% 수준에 불과
 - 특히 2011년 이후 미국 및 유럽의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M&A 시장의 초과 공급 상황이 발생
- (기업 유동성 확대) 2012년 경기 침체 속에서도 기업들의 자본 조달 규모가 확대되면서 M&A를 위한 재원은 이전에 비해 풍부한 상황
 - 2012년 들어 세계 주요 기업들은 불확실성 대비의 차원으로 증자 및 회사채 발행 등 적극적으로 자본을 조달
 - 이에 따라 M&A 대상 기업들의 가격 및 경쟁력, 영위 산업 등이 경영 전략에 부합한다면 매수 결정 시 재정적인 제약 요인은 크지 않은 상황

< 분기별 세계 기업 자본조달 추이 >



< 국제 M&A 거래 추이 >



자료 : Thomson Reuters.

주 1. 주식시장 자본조달은 증자 및 IPO, 채권시장 자본조달은 회사채, 전환사채 포함.

2. M&A는 Announced 기준, 국제 M&A(Cross Border M&A).

- (해외 기업 인수) 선진국 기업의 신흥국 시장 진출, 아시아 기업의 확장 등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M&A를 활용
 - 기업들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림에 따라 M&A 시장의 전반적인 위축 속에서도 국제 M&A 거래 비중은 확대되는 추세
 - 특히 중국 기업들의 2012년 3분기 누적 기준 해외 기업 및 사업 인수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하였으며, 전체 거래의 51%가 3분기에 집중
 - 2013년 역시 국내의 고속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선진국 기업들과 글로벌화가 진행 중인 중국 등 아시아 기업들의 국제 M&A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스마트 쇼핑) M&A 재원을 확보한 제조업체들은 단순 시장 확보 수준을 넘어 장기 성장동력 구축 전략에 따른 대상 선별과 인수에 주력
 - 2000년대 이후 M&A 거래 규모가 급증한 자원·에너지 부문과 금융 및 부동산 부문의 비중이 2012년 들어 감소한 반면, 제조 부문의 비중이 확대
 - 지멘스는 주력사업인 산업기기 부문 강화를 위해 벨기에 S/W 업체 및 영국 철도 기기 업체를 인수하는 한편, 수처리 및 태양광 사업은 매각을 계획 중
 - 특히 현재의 기업 유동성 확대가 수익보다는 자본 조달에서 비롯된 만큼, 기업의 M&A 결정 시 투자자 및 채권자들의 경영 전략적 정당성 요구가 더욱 증대될 전망

- (시사점) 경기 변동에 따른 기업의 투자 대응 능력 제고, M&A 시장 모니터링을 통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동향 파악 등이 요구
 - 각 기업들은 향후 경기 회복기 도래 시의 신규 시장 선점과 수익 확대를 위해 침체 시기의 기회를 활용한 성장동력 확보 전략이 필요
 - 호황기에는 예상 잉여 자원을 고가에 매각하고, 불황기에는 미래의 필요 자원을 저가에 매수하는 민첩성이 요구
 - 동시에 M&A 거래 분석을 활용한 글로벌 기업들의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시각 및 실제 투자 흐름에 대한 파악 역시 중요

김필수 선임연구원(02-2072-6238, pskim@hri.co.kr)

10. 세빌 서비스(Servile Service)¹⁴⁾ 유행: 고객맞춤 만족서비스 상용 개발 증대

- (의미) 세빌(Servile) 이란, 일상생활 속 언제 어디서나 하인처럼 고객들의 욕구와 필요 그리고 번거까지도 맞추는 것으로 2013년 기업들은 새로운 판매 전략으로 소비자들에 대한 배려를 더욱 강조하게 될 것임
- 세빌 서비스의 확산은 현재의 만족도를 가장 중시하는 문화, 도시소비자의 욕구 다양화, 입소문 효과 증대 및 스마트 기술의 발전 등에 기인함
 - 현대 소비자들은 다양한 정보와 폭넓은 선택의 폭에도 시간에 대한 제약을 항상 느껴 즉각적이고 초 극대화된 편리함을 제공하는 상품을 선호함
 - 도시 생활을 다양하게 향유하려는 도시소비자(CitySumers)¹⁵⁾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UN에 따르면 선진국의 도시인구는 9.6억명으로 세계 인구의 1/6에 달함
 - 최근 소비자들은 TV 등 미디어 광고에 대한 신뢰도는 하락¹⁶⁾한 반면, 소비자 평가 리포트, 상품 후기 등 입소문에 대한 신뢰와 구매 의존도는 증가
 - 한편, 2012년 11월 현재 아이튠즈에는 생활 편의 등과 관련된 73만개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활용가능하고, 증강현실 등 다양한 스마트 기술의 발전도 기업들의 판매 전략으로서 소비자 '시중들기' 역할을 강화
- (내용) 기업들은 실시간 체험·검색 서비스의 확대, 시간 및 비용 절약으로 고객의 효용 극대화 및 공공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준 공공재로서 역할을 강화하며 2013년 세빌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임
- 단순히 광고에 의존하기 보다는 고객의 실시간 체험서비스 등을 중시
 - 세빌 서비스는 고객이 먼저 체험하고 스스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현
 - 고객들이 상품을 즉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영국의 막스 앤 스펜서, 현대홈쇼핑 등은 가상현실 등을 이용한 '가상 코드' 프로그램 등을 운영
 - 고객의 운전 및 운동 습관을 실시간으로 데이터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나이키는 운동량과 효과 등을 체크하는 나이키 플러스라는 조깅화를 발매 중이며 프랑스 바볼랏(Babolat) 시는 게임 및 운동 기록을 저장하는 테니스 라켓을 출시할 예정

14) 2012년 10월 Trendwatching에서 발간된 '세빌 브랜드(Servile Brands)'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구성.

15) 도시소비자는 도시(City)와 소비자(Consumer)가 결합한 단어로 뉴욕, 런던, 서울 등 대도시 거주 소비자를 지칭.

16) Niesen(2012년 4월)에 따르면, 전세계 소비자의 47%만이 TV 등 유료 미디어를 신뢰하는데 2009년 이래 신뢰도는 20%이상 감소하고 있고, 전세계 소비자의 92%가 친구·가족들의 입소문과 추천을 신뢰.

- 고객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실시간 검색 서비스 등을 제공
 - 고객들이 실시간 검색할 수 있도록 세계 최대 쇼핑몰 관리업체인 웨스트필드(Westfield)는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검색 어플을 제공하고, SK텔레콤도 쇼핑 목록, 할인 정보를 마트의 카드에서 이용하는 스마트 카드 서비스를 2013년 도입할 예정
 -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국 해롯 백화점은 중국어 번역 어플을 무료로 출시했고, 암스테르담의 쉬폴(Schiphol) 공항에서도 번역 가능한 서비스 어플을 제공
-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막힘없이 진행되어 고객의 효용을 극대화
 - 고객의 편의를 위해 생수업체 에비앙은 2013년 스마트 드롭(Smart Drop)이라는 무선 인터넷과 연계된 버튼 하나로 물 자동주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두바이의 피자업체도 VIP용 냉장고 자석을 누르면 원하는 피자를 주문 가능
 - 고객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뱅크어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는 BankAmeriDeals로 고객들이 자주 찾는 상점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 한편, 2013년에는 자신의 인생을 백업하고 저장하는 디지털 일기장인 라이프로그(Lifelog) 앱은 물론 이와 관련된 서비스가 더욱 확산될 것임
-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준 공공재로서 역할을 수행
 - 정부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곳을 찾아내어 고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웃 인슈어런스, 다이얼 인슈어런스 등 보험사들은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포인트 맨(Pointsmen)이라는 교통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도로 관리 프로그램 등을 도입함으로써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보완

< 세빌 서비스의 주요 내용 >

구 분	내 용
실시간 체험서비스	- 고객 체험, 상품을 활용한 체계적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 - 현대홈쇼핑 '가상코드' 프로그램, 나이키 플러스 조깅화 등
실시간 검색서비스	- 고객 필요 시 실시간 검색 등을 통해 즉각적으로 도와줌 - 웨스트필드의 매장 내 쇼핑어플, SK 텔레콤 '스마트 카드' 외
고객 효용 극대화	- 시간과 비용의 절약으로 고객 효용을 극대화 - 에비앙의 무선인터넷을 활용한 물 자동주문 버튼 서비스 외
준 공공재의 역할	- 정부의 여력이 닿지 않는 곳에서 준 공공서비스 제공 - 남아프리카 보험사들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안전요원 배치 또는 도로관리 프로그램 등을 도입

○ (시사점) 소비자들이 '훌륭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만큼, 고객데이터 관리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소비자 트렌드 변화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도 개발해야 함

조호정 선임연구원(02-2072-6217, chjss@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1년					2012				2013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미국	1.8	0.1	2.5	1.3	4.1	2.2	2.0	1.3	3.1	2.1
유로 지역	1.4	0.8	0.2	0.1	-0.4	-0.4	0.0	-0.2	-0.1	0.2
일본	-0.8	-7.3	-2.8	10.4	0.3	2.2	5.7	-0.1	-3.5	1.2
중국	9.2	9.7	9.5	9.1	8.9	7.8	8.1	7.6	7.4	8.2

주: 1) 2012년, 2013년 전망치*는 IMF 2012년 10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1월 3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88	2.21	1.65	1.64	1.70	1.92	0.22%p
	엔/달러	77.66	82.41	79.37	77.62	85.86	87.35	1.49¥
	달러/유로	1.2955	1.3301	1.2437	1.2911	1.3222	1.3184	-0.0038\$
	다우존스지수(p)	12,218	13,212	12,880	13,437	12,938	13,391	453p
	닛케이지수(p)	8,455	10,084	9,007	8,870	10,395	-	-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4	3.55	3.30	2.79	2.82	2.77	-0.05%p
	원/달러(원)	1,151.8	1,133.0	1,145.4	1,111.4	1,070.6	1,061.5	-9.1원
	코스피지수(p)	1,825.7	2,014.0	1,854.0	1,996.2	1,997.1	2,019.4	22.3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1월 3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9.22	103.10	84.86	92.10	90.89	92.83	1.94\$
	Dubai	104.89	120.38	92.89	110.56	107.99	107.72	-0.27\$
CRB선물지수	305.30	308.46	284.19	309.29	294.78	295.65	0.87\$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E)	2013(E)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8	3.4	3.6	2.2	3.1
	민간소비 (%)	2.9	1.6	2.3	1.6	2.5
	건설투자 (%)	-7.1	-3.0	-5.0	-0.4	2.2
	설비투자 (%)	8.9	-1.1	3.7	-0.7	4.8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81	184	265	390	285
	무역수지 (억 달러)	153	155	308	302	277
	수출 (억 달러)	2,736	2,816	5,552	5,535	5,845
		(증가율, %)	23.6	14.9	19.0	-0.3
	수입 (억 달러)	2,582	2,662	5,244	5,233	5,568
		(증가율, %)	26.7	20.2	23.3	-0.2
소비자물가 (평균, %)		3.9	4.1	4.0	2.2	2.5
실업률 (평균, %)		3.8	3.0	3.4	3.3	3.3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2	1,114	1,108	1,126	1,060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